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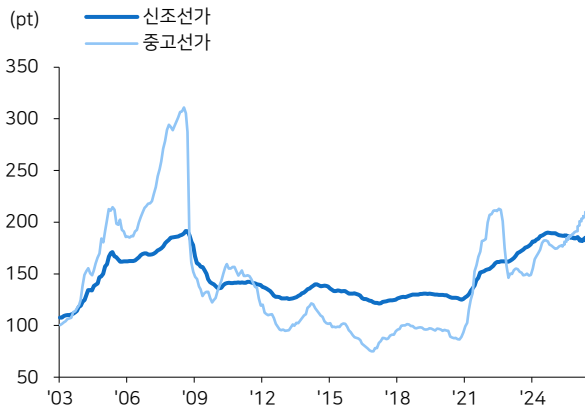


2026. 6. 2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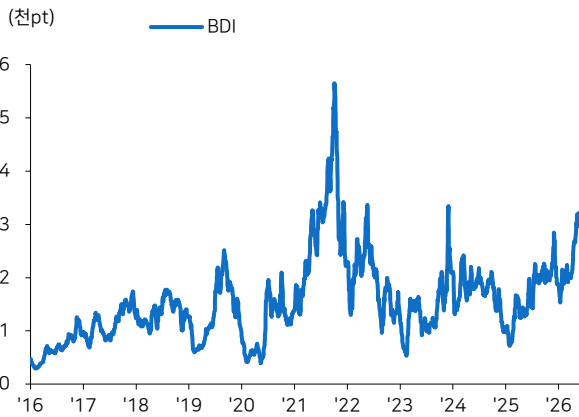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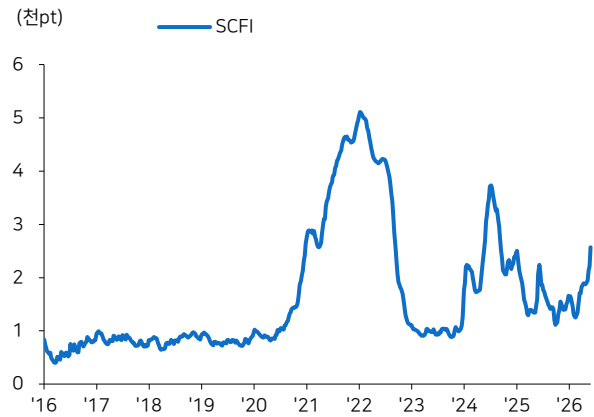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5.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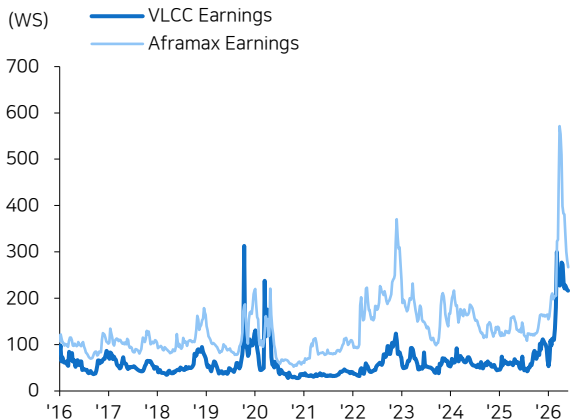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224.0p (-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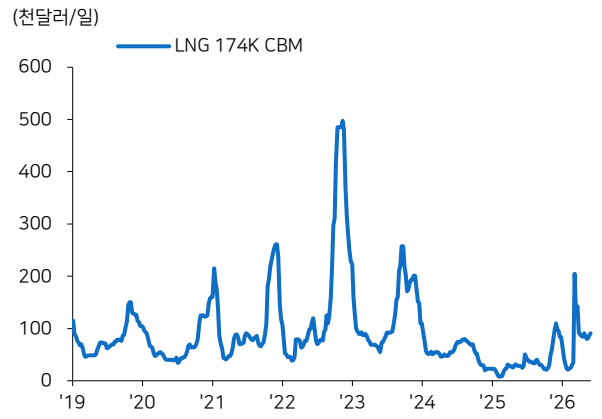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571.7(+353.6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1.0천달러 (+3.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ipping will not pay twic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EU commissioner tells Greek shipping (TradeWinds) <https://zrr.kr/fxVx46>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집행위원이 '포시도니아 2026'에서 IMO의 탈탄소 규제가 확정되더라도 해운사들이 EU와 IMO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공언했음이 보도됨. 치치코스타스 위원장은 규제로 거둔 수입을 해운업계의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럽과 그리스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IMO 협상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완화된 입장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해짐. 이에 대해 그리스 정부와 선주업계는 과도한 기후 야망으로 해운업의 주도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 역시 LNG의 역할 등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려짐.

Evangelos Pistoris back at Hyundai for tanker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OJkeJx>

그리스 선주 Evangelos Pistoris가 HD현대중공업에 50,000dwt급 MR 탱커 3척을 적당 5,400만 달러에 발주하며 한국 조선업체로 복귀한다고 보도됨. 이번 발주는 2028년 인도 예정인 고사양 선박들로 구성되었으며, Evangelos Pistoris는 지난 2월 중국 광저우조선소에 MR 탱커 10척을 발주하기도 했으나 HD현대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 야드를 선택했다 전해짐. 조선업체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Hafnia, Gulf Energy Maritime 등과의 계약으로 2028년 MR 탱커 슬롯을 대부분 소진한 했다고 보이며, 현재 Thenamaris를 비롯한 다른 유럽 선사들과 진행 중인 추가 MR 탱커 협상은 2029년 인도 슬롯을 두고 논의 중으로 관측된다고 알려짐.

한화오션에 맞불 놓은 독일...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격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aq87o0>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한국과 독일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됨. 독일 국방장관은 자국과 노르웨이의 잠수함 도입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2036년 내 4척 조기 인도를 선언하고 2년 내 탄소 포집 시설 및 어뢰 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 공세를 펴며, 2035년 인도를 강조해 온 한화오션을 견제하고 있다고 전해짐. 한국 역시 잠수함 적기 인도 역량과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속하며 맞서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군사적 요구 조건과 경제적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정기선 HD 현대 회장, 그리스 군함 잠수함 사업 '정조준'...현지 최대 조선소와 '의기투합' (더구루) <https://zrr.kr/ZUfRaE>

HD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해양 박람회 '포시도니아 2026'에서 현지 최대 규모의 스키라망가스 조선소와 합성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그리스가 국방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약 46조 원 규모의 신규 잠수함 4척 조달 사업을 겨냥하며, 그리스 정부가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현지 산업계의 최소 25% 참여' 조항을 충족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해짐.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그리스 해군·해경 함정 및 무인수상정(USV)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의 공동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짐.

KDDX 수주전 핵심 변수...HD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 심문 시작 (세계일보) <https://zrr.kr/WleikU>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HD현대중공업이 신청한 '보안감점 연장적용 금지 가처분'의 법원 심문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1.2점의 보안 감점이 방위사업청의 재검토에 따라 2025년 11월에서 1년 연장되자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군함 수주 특성상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가 한화오션과의 7조 8,000억 원 규모 KDDX 수주 경쟁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으로 전해짐. 방사청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해 각각 벌점을 부여했다는 입장인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신뢰보호 원칙을 깬 부당한 연장이라며 대립하고 있다고 알려짐.

Shell's LNG Canada gives preliminary green light for phase two expansion (Upstream) <https://zrr.kr/WKjIwm>

Shell이 이끄는 LNG Canada 컨소시엄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터미널의 2단계 확장 사업을 앞두고 주계약자인 Fluor 및 JGC Corporation 합작법인에 제한적 착공지시서를 발급했다고 보도됨. 이번 지시를 통해 합작법인은 조기 계획 수립 및 주요 활동을 시작하여 연내 예정된 최종투자결정(FID)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 기존 연산 1,40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 두 배인 2,800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Shell은 지난 3월 Coastal GasLink 파이프라인 2단계를 위한 FEED 계약을 체결하고 4상 사업 가동과 연계된 캐나다 가스 개발사 Arc Resources를 164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북미 가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